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계엄과 탄핵 후 여론은 요동친다. '정당 지지율과 대선 후보 선호도 또는 가상대결 그리고 정권 교체론 vs. 연장론'의 3대 지표 모두 그렇다. '초반 압도-격차 축소-접전 양상 또는 역전'의 패턴이다.
첫째, 12월 초중순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53%까지 오르며 24%의 국민인합을 압도한다. 12월말부터 1월 초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로 1월 중순이후 양당 격차는 더욱 축소된다. 오차범위 내 접전양상이 대부분으로 여당이 아당을 앞서는 조사도 나온다.
둘째, 대선후보 여론은 '초기 이재명 독주'다. 다자구도는 물론 양자대결에서도 여권 후보를 상대로 10%~20% 포인트 앞선다. 이후 여권 후보들 지지율이 상승한다. 그래도 이재명 우위지만 양자 간 격차는 좁혀진다. 설 연휴 직전 '김문수 약진'이 핵심으로 그는 보수 결집의 계기다. '46% vs. 42%'로 이재명을 누르기도 한다. 다른 여권후보들도 이재명을 오차범위 내에서 거세게 추격한다.
셋째, 정권 교체론 역시 초반에는 압도적이다. '정권 교체가 60% vs. 연장 32%'로 두 배 가까운 차이다. 1월 초 이후 정권 교체론은 줄어들고 연장론이 늘어 '교체론 53% vs. 연장론 42%'를 보인다. 중순 이후 설 연휴 즈음에 정권 교체와 연장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뒤집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아버지에 대한 나의 기억의 시작은 시골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던 때이다. 내가 태어나 아주 어릴 적 기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술 과목을 가르쳤다. 목회를 잠깐 하시다 시계 수리 자격증이 있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학교의 교감까지 역임하시다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목회를 다시 했다. 직접 그 당시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만 집에 있는 그 학교의 몇 권의 졸업앨범 속에서의 아버지는 독사진과 함께 그 밑에는 '교감 아무개'라는 직책과 성함이 기록되어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대단한 분이었던 것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버지 방에 가득했던 시계들과 시계수리 도구들이었다. 아버지 방에 가끔 들어가면 책을 보시며 설교 준비를 하시던지 시계를 고치는 모습이었다. 작은 부속들로 이루어진 오토매틱 시계를 귀에 가까이 대면 재작재작 소리 내며 쉽게 없이 움직이는 시계들을 보면 무척 신기했다. 루페(Loupe)를 한쪽 눈에 끼고 시계를 분해하는 모습이 참 멋져 보였다. 작은 부속들을 하나하나 조심히 분해하여 소독하고 깨끗하게 한 뒤에 백열등의 열로 그것들을 말리

기고



박두석
전 민족통일목포시협의회회장

새삼스럽게 내 나이를 다시 한번 읊조려본다. 1930년 생 생각해보면 어느새 96세를 맞이하여 어떻게 살아왔을까?
옛 성현의 말씀에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인생을 일흔까지 산다는 것은 옛날부터 드문 일이다)요, 강건하면 팔십이라 하겠거늘 망구(望九)를 지나 100세에 이르렀으니 옛 어른들의 말씀이 무색할 지경이다.
인간 오복(五福)에 첫 번째가 '일월수'(一曰壽-장수하는 것)라고 하였는데, 혹여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참적(慘賊)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라도 오면 그 비통함을 누가 막을 수 있으리요, 이런 비통함이 있기 전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남는 건 후회와 미련뿐이다.
나무도 고목이 되면 놀러 왔던 새도 아니 오고, 물도 건수가 되면 놀던 물고기도 아니오는데, 노년의 내 삶이 이러한 것 같아 서글프만 느껴진다.

'부정선거론'이 가른다!

히는 조사가 처음 등장하지만 정권 교체론의 우위 속에서 팽팽한 접전양상이다.
당장 이재명 민주당 '탁공'의 우려와 불안감이 중도층으로까지 확산된 결과다. 이 대표는 "독재와 반민주 세력의 반동은 계속 될 것"이라며 "마지막 고비 넘어가자"고 한다. '6개월 안에 끝낸다'와 '2심 전 대선'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모습이다. 최근 조사를 보면 중도 무당층에서 '민주당 신뢰와 불신'은 거의 동률이다. 중도층 유권자의 1/4은 '현재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다.
'문재인 학습효과'는 구조적 배경이다. '1987년 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공화국의 기초 만들기'라는 시대정신과 역사적 임무를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극단적 대립과 교착의 정치'는 '문재인 권력의 실패'를 상징한다.
3대 여론 지표에 반영된 보수의 위기감과 결집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된다. 보수층의 적극적 응답은 '윤석열을 향한 동정심'과 그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 정치에 따른 동원효과이기도 하다. '30대에서 탄핵반대가 앞서는 조사까지 등장하는데서 보듯 2030세대가 결정적이다. 이들은 수도권에 탄핵반대 여론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오는데도 일조한다.
여론동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3대 지표 여론의 변화를 추동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의견의 변화'다. 이는 당장 현재의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길게는 향후 우리 정치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후보 선호도 그리고 양자대결에서 접전 또는 여당 우위의 여론변화의 출발점은 탄핵 찬반의 변화다. 12월 초에는 탄핵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다.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고 반대는 20% 초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엄

을 '위헌적 중대범죄 또는 내란'으로 간주했다.
12월말부터 1월 중순사이에 변화가 나타난다. 탄핵 찬성여론은 줄고 반대가 늘어난다. 예를 들면 '찬성은 75%에서 64%로 줄고 반대는 32%로 증가'한다. 그후 탄핵 찬반격차는 더 축소되는데 '탄핵찬성이 57%-64% 반대가 36%-43%의 분포'를 보인다.
탄핵 찬반의 의견변화는 계엄평가와 연동된다. 초기에는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는 경향이다. 특히 보수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계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소폭이지만 상승한다. '여당 지지율과 대선 후보 선호도 그리고 양자대결의 접전양상 흐름'은 계엄과 탄핵찬반의 의견변화로부터 시작한 셈이다.
나아가 계엄과 탄핵찬반의 근거에는 '부정 선거론과 가야 입법독재의 행패론'이 있다. 모두 이념적 갈등과 진영 간 대립의 계기라는 게 걱정이다. 특히 부정 선거론은 '30% 중반의 찬성 vs. 60% 전후의 반대'를 보이지만, '보수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한다'는 게 주목된다. 젊은층과 고령층에서 부정선거 공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도 하다.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48% vs. 불필요 47%'라는 조사도 있다.
결국 부정 선거론은 첫째, 진영 대립을 더 격화시키고 약화시킨다. 중도의 선택과 판단이 결정적인데 길게 끌수록 보수의 부담은 늘어난다. 둘째, 보수의 분화 또는 분열 개연성이다. 극우적 성향의 그룹이 보수의 주류가 되면 대선은 다자구도로 바뀔 수 있는데 이때는 이준석의 향배가 중요하다. 보수의 재편이다. 셋째, 여당 대선 후보의 선출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출발점이다. 이는 여당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부정 선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정할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고 다시 조립하면 대부분 다시 작동을 하였다.
나의 이러한 경험으로 설교할 때 시계의 분해소지를 예화로 들기도 했다. 시계를 분해소지 하듯 우리의 모습도 때가 끼어 멈춰버렸다던 차근차근 분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빛 아래에 말리고 다시 조립을 한다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다. 어릴 적 이러한 이유로 다른 명품은 잘 모르지만 시계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았다. 시계는 많은 제품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명품이 있으면 진짜와 똑같이 만들어진 가짜도 있기 마련이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스위스 명품 시계제조업체인 오메가가 전시할 목적으로 44억에 낙찰 받은 자사의 시계가 당시에 만들어진 완제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진품부속들과 새로운 부속으로 정교하게 재조립된 프랑켄슈타인 시계라고 밝히며 법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요즘 방영되는 TV드라마에 이러한 장면이 있었다. 명품 수입업체에서 감별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와 가품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경쟁사는 학벌뿐 아니라 이미 그쪽 세계에서 이름난 감별사를 등에 업고 벌인 일이고 이쪽 회사에서 진품임을 증명하는 사람은 30여년의 경력을 가진 이름 없는 수선사였다. 물론 드라마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수선사를 응원하고 인

정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 수선사는 긴 세월동안 보았고, 만졌고, 냄새를 맡으면서 그냥 알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수선사의 판별이 맞았고 그를 믿지 못했던 수입업체 대표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그 수선사의 능력에 경의를 표하는 장면으로 마무리 되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는 말씀이 있다. 진짜를 오래 많이 보고 만지면 가짜를 금방 구분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신을 맞보아야 하는 것이다. 강요나 선동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군중심리에 휘말리는 것도 더욱더 아니다. 그러하기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그 이롭고 능력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신앙의 운둔 고수인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라 하겠다.
작금의 세태를 보면 한국 교회의 대표가 어떤 특정한 것처럼 비춰지니 참으로 안타깝다. 최근 주간보호센터에서 봉사하며 어른선들과 부른 노래가 있다. 한 때 유행을 탔던 신신이라는 분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중에 "여기도 찌가 저기도 찌가 찌가가 판친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1993년도에 발표된 노래지만 어쩔 지름 들어도 잘 들어맞는 것 같아 씁쓸하다. 나는 삼십년 가까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 오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았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는 그들에 의해 지켜지고 그 신앙은 후손들에게 전수되어 진짜가 많아지는 교회되기를 소망한다.

노년의 인생

'만퇴구적'(밤이 깊어 모든 소리가 그치고 아주 고요함)을 느끼는 시간이 많다. 오늘 우리 세대는 풍요를 노래하건만 누가 이 풍요를 가져다 주었는가? 옛날 우리는 자식들을 나보다는 더 잘살게 하고자 눈·발 팔아 공부시켰고, 나보다는 자식을 위한 마음이 컸지만, 이제는 노년이 되어보니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이 백안시, 사갈시, 경원시하는 풍조가 되어 안타깝다. 현재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는 뉴스를 접하니 노인을 위한 정책을 더 신경 써주라는 주문도 부끄럽고, 주책스럽다.
누구나 겪을 노년의 삶. 그 삶이 막막하거나 서글픈이 아닌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묵묵히 삶의 무게를 견디며 이 풍요의 시대를 이루는데 우리도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땀땀이 말하고 싶다.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내가 알고 지냈던 친구, 이웃들이 서서히 저주를 감추었다. 나이가 되어 병으로든 어떤 사유로든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러 생의 마감했다. 다시 볼 수 없음에 마음이 서글프고 하니 돌내 곁을 떠나고 있음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한다. 나도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고 현재에 이르렀다.
아내를 3년 전 먼저 보내고 한참을 너무 힘들어 약간의 치매 증상을 보여 아이들을 놀라게 하였고, 소소히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

사 도움을 받아 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됨을 더없이 축복으로 생각한다.
일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보러 간다. 나의 삶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내 앞에서 자식들이 참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내 삶을 정리하는 기도를 한다. 잠자듯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는...
세월의 뱀들은 자기 나이에 비유한다고 하니 난 하루를 시속 96km로 살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일 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짧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보내고자 내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산다. 음식은 소식을 하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걷기 운동을 1시간 정도 하는 등 내 몸을 지켜서 자식들에게 덜 부담이 되고자 노력한다.
나름대로 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스스로도 자부하고 찾아주는 이에게도 자랑을 하지만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고독함과 적막함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4남 1녀의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안부 전화를 주고, 막내딸이 가까이 살기에 의지가 되고 있다. 또한 절 때면 제철 음식을 보내주는 등 내 안부와 건강을 챙겨주니 살아 있음에 감사하게 느끼면서 조용히 삶을 정리하면서 보내고자 한다.

社說

'민생 경제·조기 대선'... 설 민심 실현해야

긴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됐다.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공식적인 설 연휴는 6일이었지만 31일을 쉬면 최종 9일까지 연휴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해외여행에 나서면서 골목상권은 오히려 싸늘해졌다.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많았다. 광주·전남 골목상권은 한달여 전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여파에다 폭설까지 겹쳐 타격이 더 컸다. 설 연휴 밥상 민심의 최대 화두는 단연 친체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월급이 2.8% 오르는 동안 물가는 3.6%나 올라 근로소득과 물가의 상승을 격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컸다. 물가 상승률 탑(Top) 10 가운데 9개가 과일 등 먹거리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훨씬 심했다는 의미다. 지역민들은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이 중

심이 되는 민생 경제 회복 없이는 정치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렇다 보니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이 두 번째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진보와 보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탄핵 정국을 하루빨리 끝내고 정치 안정을 꾀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탄핵해 불안정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는 데 의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꾀해야 한다는 설 민심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 치열한 프레임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설 민심을 외면하고 프레임 싸움에만 몰두한다면 조기 대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진영을 넘어 중도 확장을 위해서라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민생을 챙기는 경쟁에 나서야 한다.

호흡기 환자 급증 속 연휴 끝 '다시 일상으로'

지역민들은 이번 설 연휴를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과 그 어느 때보다 겨울철 호흡기 질환자가 많이 발생한 건강주의보 속에서 보내야 했다. 민족의 명절임에도 덕담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밥상 화두로 올랐다.
특히 감기나 독감, 폐렴 등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자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느라 여념이 없는 휴일을 보내는 이들이 많았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30일) 광주 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공항 등은 오전부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귀경객들과 배웅 나온 가족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귀경객들은 배웅 나온 부모님과 아쉬운 인사를 나누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자식을 올려 보내는 부모들은 얼마전 독감에 걸린 탓에, '그렇게 내려오지 말라'

고 당부했는데 손자들까지 데리고 왔다'면서 걱정하는 한편 폭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보러 온 자녀들에게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했다.
올 겨울 독감과 감기·폐렴 등 호흡기 질환 환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급증하고 있다. 이번 겨울 감기는 평년과 달리 3~4주 이상 장기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특히 독감은 한번 걸린 뒤 다시 걸리는 경우마저 상당수이다. 또한 폐렴 환자도 많아 발병 수일 만에 폐의 기능이 정지돼 사망하는 환자들까지 늘고 있다고 한다. 설 연휴 뒤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들이다.
정치적 혼란과 건강이 위협받는 호흡기 질환 창궐 속에서 몇새 간의 설 연휴가 끝났다. 극도로 혼란하고 경제마저 불안한 상황이지만 명절은 가족들과 정을 나누고 다시 시작할 재충전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無等鼓
'모란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다. K리그에서 광주FC 이정효 감독은 '모란 돌'이다.
군산제일고-아주대 출신인 그는 부산에서 10시즌 동안 165경기에 출장해 10골 8도움을 기록했다. 파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축구계에서 이정효 감독은 '흙수저'이기도 하다. 화려한 스타 선수도 아니었다.
하지만 '감독' 이정효는 K리그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다. 2022년 광주에서 처음 이 동계훈련에서 만난 선수들의 인터뷰는 기승전 이정효였다. 베테랑 수리꾼 김경민은 물론이고 골구단 최고 성적으로 '야구 도시' 광주에 축구 바람을 일으켰다. 지난 시즌에는 광주의 첫 아챔무대에서 질주를 이끌며 다시 한번 이름을 알렸다.
광주 축구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거침 없는 말과 행동은 그를 '모란 돌'로 만들었다. "시간 남으면 골 넣으라"며 팬들을 위한 공격 축구를 강조하는 이정효 감독은 '재미없는 지키는 축구'를 구사하는 상대에 도발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기록권을 가진 이들에게는 변방에서 등장한 감쪽
/김여을 체육부 차장 wool@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title '光州日報'.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